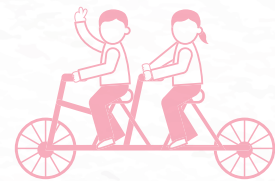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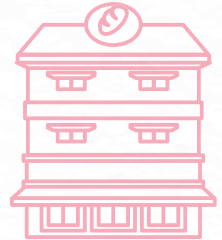




경상 의 봄



시민 전 생애주기 든든하고 촘촘하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군산

군산시는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 단계별 보육·놀이·교육·문화체육·일자리 등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시범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이의 권리는 물론 육아의 주체가 되는 부모 역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행복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군산을 아젠다로 설정해
지금부터 시민의 전 생애주기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군산이 시범도시가 되어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 04 기획특집
-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출범
- 08 군산의 봄
- 꽃길 따라 걷다 보면 얻게 되는 힐링
- 10 군산의 인
- 든든한 우리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 12 군산 명가
- 우리시 전통명가를 소개합니다!
- 15 우리 동네 이야기
- 16 리포터 소식
- 17 의회
- 20 시정알림
- 22 문화 공연 알림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아이 키움 · 청년 키움 / 가정 키움 · 지역 키움

2023년 군산시는 더 크게 성장하는 새로운 도약의 해를 만들어갑니다. 특히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존립의 위기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인구 문제' 관련 하여 군산 역시 인구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 낳아 기르는 것부터 행복한 삶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전 생애 주기를 든든하게 채워나갈 밑그림은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촘촘하게 그려가겠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양육



- 임신출산 지원 (예비맘 엽산제 · 건강검진, 난임 시술 · 치료비, 임신 · 출산 진료비)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산후건강관리
- 부모급여, 영아 · 아동수당
- 영유아 건강검진 · 상해질병보험
- 북스타트
- 육아종합지원센터
- 다함께돌봄 · 공동육아나눔터



온 동네가 다같이 지역인재 키우기에 동참하는 책임 교육



- 생생직업체험교실
- 공부의 명수
- 청소년 자기계발연수
- 창의 · 재능 인재 양성
- 예술 · 체육 · 상업 · 기능 분야 우수인재 양성
-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 민관학 협력교육 시스템 구축



지역에 뿌리내리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 군산형일자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
- 창업 희망키움사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양성사업
- 농업인대학 운영



문화관광을 기반으로 가족 친화 정주문화 개선



- 군산문화도시 추진
- 서군산복합체육센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농어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구축
- 중 · 고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추진
- 지방하천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 군산전북대병원 신숙건립
- 독서문화공간 확충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추진
- AI ·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치매안심센터 운영
- 노인생활 안정지원
- 노인맞춤 돌봄강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출범

언론계 · 교육계 · 시민 등 339명

새만금 개발사업과 동서도로 ·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구역 결정 등에 대응하고자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새만금방조제 길이(33.9km)로 간절한 시민의 뜻을 담아 339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관련 대시민 홍보활동과 군산시민의 여론을 결집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승우 위원장(전 군장대 총장)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Q.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민의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군산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Q. 어떻게 구성 되었나요?

언론자치교육, 경제항만, 문화체육, 보건복지 등 6개 분과를 중심으로 212개 사회단체에 소속된 시민들이 군산의 미래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Q. 역할은 무엇입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염원함과 동시에 군산시 발전에 원대한 성장 동력인 새만금 관할권을 지켜내야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진 단체인 만큼 잘못된 결정은 바로잡고, 속도 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견인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Q. 향후 활동 계획은?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의 군산시 귀속을 위해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정책과 비전 제시를 위한 토론회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군산과 새만금이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군산 봄 여행코스

꽃길 따라 걷다 보면
얻게 되는 힐링

예쁜 꽃들을 만나면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꽃잎이 작으면 작은 대로,
만발한 곳은 또 그 풍경대로 힐링이 된다.
매년 피는 꽃이지만 항상 기다려지는 추억이다.

다양한 아름다운 봄꽃처럼
매력적인 군산을 마음속에 담고자 한다면...



1. 원나포마을
2. 군산시청
3. 장자도
4. 옥구향교



낮에 보고 밤에 또 보고!



1. 월명공원
2. 은파호수공원





튼튼한 우리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우리 삶 가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시민이 있다. 사회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 군산시민의 삶에 큰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시민 영웅' 김윤하씨

2월 6일, 수송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의 갑작스러운 모습에 식사 중이던 손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그 사이 한 남성이 주저 없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쓰러진 A씨가 의식을 되찾고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다행히도 쓰러진 A씨는 다음날 감사의 인사까지 전할 정도로 무사히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인으로 알려진 남성은 다름 아닌 김윤하(36) 씨. 안전 교육을 통해 배워둔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하는 김 씨는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린 건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쓰러진 모습을 봤을 땐 주저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말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은 4~5분 정도라고 한다. 어느 날 내 가족이나 이웃, 혹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필요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해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입증된 사례다.



아파트 차량 화재 진압한 '시민 영웅' 지종학씨

2월 20일, 조촌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를 목격한 지종학 씨는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지 씨는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꺼내 다른 주민들과 함께 화재 진압을 시작했다. 그 사이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원들이 도착했고, 불은 발생한 지 15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누구나 불길을 봤다면 비슷하게 행동했을 거라고 말하는 지종학(61) 씨. 평소 소화기와 소화전 위치를 기억해뒀



고, 소화전 작동법을 익혀둔 덕분에 불을 끌 수 있었다고 한다. 지 씨의 용기와 뛰어난 대응으로 다른 차량에 불이 옮겨붙어 자칫 대형사고가 될 수 있었던 화재를 초기에 막을 수 있었다.



우리시 전통명가를 소개합니다!

군산에서 30년 넘게 동일 업종 명맥을 잇는 '전통명가'에 6개 업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가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력과 454-2673

'꽃으로 사람을 잇다' 라복임플로체

라복임플로체는 '꽃으로 사람을 잇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같은 장소에서 30년째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9년 전부터 아들이 가업을 승계 중으로 온라인 사업장, 군산청년희망키움 사업에 참여하는 등 그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감과 동시에 지속적인 직원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영방식을 일부 부분 접목하여 생화 관리 및 매장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라복임플로체라는 상호로 프리미엄 브랜드화를 시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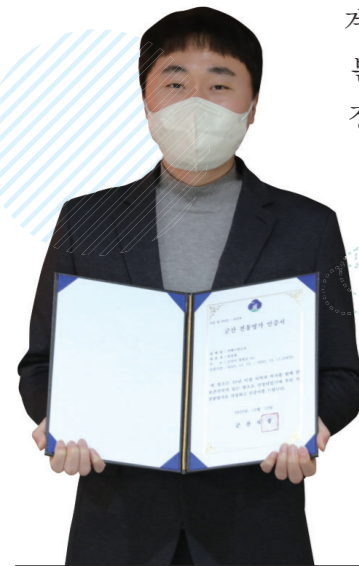


'실전의 노하우와 이론의 만남' 서해스튜디오

1980년 개업하여, 현재까지 서해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가업승계로 40여 년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생긴 노하우를 이어받은 아들은 그대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사진영상학과를 졸업하며 배운 사진과 영상에 대한 이론들과 접목해 사장님만의 확고한 기술을 터득하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로 군산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졸업하는 어린이들의 아쉽지만 새로운 기대감에 부푼 웃음을 사진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40여 년간의 아버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좋은 기술로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초심, 친절, 그리고 맛있는 음식' 세정식당

서해바다에 접해있는 도시 군산. 이곳의 풍부한 생선과 해산물들로 생선탕 요리 한길만 걸으며 43년간 운영했습니다.

최근 다른 영업장들과 마찬가지로 세정식당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 갈 수 없었지만, 방역수칙을 꾸준히 지키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위해 최고의 맛을 내려 똑같이 영업하였습니다.

별다른 철학은 아니지만, 초심과 친절을 잃지 않으며 오시는 한 분 한 분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느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광고마트' (유)싸인텍

1981년 창업을 할 때부터 가업을 승계할 생각으로 아들의 이름을 사용, 상호를 평화사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 1998년에 예술성과 전문성을 표할 수 있도록 sightech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 창립 41주년에 이르렀습니다.

디자인 전문 회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 광고 디자인, 광고마트부 등 각 업종별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세부적으로 체계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군산의 디자인 전문성을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광고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공장 등 B2B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40여 년간 구축된 노하우로 경쟁력과 특수한 영업방식에 장점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100% 수제로 이어가는 전통' 토방의상실

1981년 명산동에 토방의상실로 개업한 뒤 두 번의 이전 끝에 현재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군산 최초로 관광호텔 7층에서 단독 123점 작품발표 패션쇼를 2회 했으며 그 외 여러 발표회에서도 많은 의상을 전시할 만큼 실력만큼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성복에 밀려 맞춤복이 소멸되어 가고 코로나의 여파에 힘들어도 기성복과의 병행사업을 마다하고 작품(의상)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몇 대를 이어 멀리 타지역에서도 찾아오시는 단골손님들 덕에 의상은 나의 운명이라는 철학과 같은 생각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 실향민들과 함께 성장한' 뽕빠이 냉면

1954년부터 현재까지 냉면 한 가지 메뉴로 4대째 가족이 함께 경영 중입니다.

뽕빠이냉면은 한국전쟁 때 군산으로 피난 온 후 시장 좌판에서 평양에서 배운 냉면을 파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뽕빠이냉면은 한국전쟁 때 군산으로 피난 온 후 시장 좌판에서 평양에서 배운 냉면을 파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약 68년간 군산에 정착하기까지 군산시민과 실향민들의 도움이 정말 컸기에 은혜를 입었던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사골육수를 기본으로 닭고기, 돼지고기를 넣어 3년 이상 간수 뽕 천일염과 숙성간장으로 담백한 맛으로 1대째부터 내려오는 레시피를 그대로 이어 사용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가기 위한 여행을 간다거나, 가기 전 미리 여행지의 맛집을 찾아보는 등 맛에 초점을 둔 여행이 트렌드인 만큼 열린시정에 실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지금 우리 동네는



신평동, 봄을 맞은 야구 거리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앞 야구 거리에 봄꽃이 활짝 폈다. 화사하게 심어진 야구공 화분 사이의 길을 걷다 보면 군산상고 출신의 야구선수들도 만나볼 수 있다.



나운3동, 음식물 수거용기 거치대로 깨끗한 동네 만들기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음식물 수거용기가 거치대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된다. 원룸,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급 중이며 골목길이 깨끗해져 주민 만족도가 높다.



흥남동, 두근두근 새학기, 책가방 메고 학교가자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벗고 나섰다.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학생 21명에 책가방을 지원하였다.



나운2동, 행복 나눔 공유공간

나운2동에는 복지 사각지대 해결사가 있다. 주민과 단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로 채워진 공간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라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다.



소룡동, 기업·주민 상생 프로젝트 소룡1°C 출범

산업단지 중심인 소룡동에 기업이 정기적인 기탁 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수익을 주민체감형 사업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기업활동과 근로자 이주정착을 지원한다. 소룡동에서는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25년까지 10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송동, 하하호호 붕어빵 나눔

천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을 위해 직접 만든 붕어빵을 전달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봉사는 특히 추운 겨울철 외로운 이웃에게 희망의 소통 창구가 되어주고 있다.



군산의 샘물, 장군샘 약수터가 다시 돌아왔다



리포터 박 영 미
마음이 답답하고 원하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시원한 냉수만큼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것도 없다. 장군봉 기슭 아래 서쪽에 오리알 약수터가 있다면, 동쪽에서는 17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장군샘 약수터가 있다. 이번에는 주저 없이 '개정동 280-3'에 위치한 장군샘 약수터로 향했다. 새로 정비된 곳답게 정자와 우물의 빛깔이 고왔다. 이곳은 물맛이 아주 좋아 어느 장수가 큰 바위 뚜껑을 덮어놓고 혼자 마셨다는 유래가 전해진다. 약수는 흐르는 물이 아닌 수도꼭지를 여닫으며 받을 수 있었다. 맑고 투명한 물에 정신까지 맑아지는 기분이다. 장봉샘 주변으로 고즈넉한 산세를 즐기며 마을 산책도 가능하다. 바람에 스치는 곳마다 봄기운이 피어났다.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리포터 오 정 희
어느덧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기지개를 켜는 듯하여 나의 발걸음을 소룡동 시민체육공원으로 옮겨 보았다. 탁 트인 넓은 공원 눈앞에 금란도를 품고 펼쳐진 바다와 짙은 코발트색 하늘을 마주하는 그네에 앉아 물멍하는 시간 속에서 나를 가만히 내려놓고 마음의 심포를 짝어 본다. 소룡동 시민체육공원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과 여름에는 더위를 날려줄 바닷분수, 그늘막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와 킥보드를 편히 즐기는 시민들, 반려견과 마음 편히 산책하는 견주분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살며시 미소를 지어봅니다. 축구장과 잔디가 깔린 풋살장에서 청년들이 큰 소리로 응원하며 시합하는 모습을 그려보며 오늘의 산책을 마칩니다.

중동 서래포구에서 감성과 힐링의 시간을...



리포터 고 덕 자
째보선창을 휘돌아 금강하굿둑을 바라보고 있는 중동 서래포구마을, 고즈넉함과 정겨움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1990년 초까지 동부 어판장의 배후 지역으로 신영동에서 금암동 짚보선창까지 이어지는 어업 관련 상거래의 한 축을 이뤘던 곳이지만, 지금은 내항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어업 관련된 기능은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작은 항구의 포근한 감성이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다. 중동 주민들로 조직된 마을단체 '서래포구 마을'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동작업장과 마을 카페, 군산 유일의 동제(洞祭)인 당산제와 서래장 등 역사와 전통이 깊은 중동 관련한 벽화 및 조형물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새롭고 다양한 것들이 흥수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이곳 서래포구에서 시간이 아찌면 더 많은 활력을 줄 것이다.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 만들어진 보물같은 곳, 청암산!



어린이리포터 배 승 우
집에서 코 달을 정도로 가까운 청암산은 호수와 나무가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처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청암산을 걸었을 때는 너무 힘들어 불평거리며 땅만 쳐다보며 걸었다. 귀찮음을 꼭 참고 한 번 두 번 주말마다 산을 걸으니 조금씩 호숫가의 새도 보이고 주변 경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숲속에 있을 때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의자에 앉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거기에 더해 또 하나의 힐링 공간은 잔치국수집! 열심히 걷고 난 후 먹는 잔치국수의 맛은 정말 꿀맛이다. 다들 느껴보시길 추천해본다.

도심 속 힐링공간, 팔마산



어린이리포터 이 은 빈
군산시에에는 수많은 명소가 있다. 그중에서 내가 오늘 소개할 명소는 바로 군산부설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팔마산이다. 지형이 여덟 마리 말이 있는 형국이라 해서 팔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팔마산은 해발 47.3m로 오르기 수월하여 1967년부터는 흥남공원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쉽게 오르내릴 수 있어 많이 찾다 보니 공원 역할도 하고 있는 거 같다. 나는 부설초 재학시절 일주일에 한 번씩 팔마산을 오르며 자연의 매력을 느끼곤 했다. 특히 가을에 올라가면 신선한 바람을 느끼며 다채로운 단풍나무를 볼 수 있어 벤치에 앉아 쉬기 좋은 곳이다. 도심에 한눈에 보면서 자연을 느끼고 힐링하고 싶다면 팔마산을 한 번쯤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따스한 봄, 산책하기 좋은산! 통매산



어린이리포터 김 예 림
차를 타고 가다 신호 대기 중에 너무나 멋진 새들이 떼 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너무 우아하고 멋진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는 새하얀 새들을 계속 눈으로 좇아 보다가 나무 위에 동지를 틀고 앉아있는 새 떼를 발견했다. 그곳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중대백로와 왜가리가 동지를 틀고 새끼도 낳아 기르고 있는 통매산이었다. 특히 통매산은 유아와 아동들의 정서 함양 및 창의성 증진을 위해 서부지방 산림청에서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이다. 도심 속에서 계단을 오르는 정도의 가벼운 산책으로 아이들은 자연 속 숲 놀이터에서 맘껏 자연을 즐기고 느끼며 뛰어놀 수 있고, 어른들은 풍부한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할 수 있는 정말 근사한 곳이다. 성큼 다가온 따스한 봄, 가족들과 즐거운 산책하기 좋은 통매산이다.



군산시의회,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 및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건의문 전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4일 군산시에 연두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를 면담하여 군산새만금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에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2호방조제를 빼앗긴 것에 시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에 대해 김제시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관할권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입을 모았다.

김영일 의장은 “도에서 중재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 관할권 분쟁이 생길 때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사사건건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갈등만 더 키우고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늘어만 간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새만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도의 방관으로 김제에 이어 군산·부안이 새만금 관할권 관련 범시민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시·군이 분열하고 있다.

관할권 분쟁이 앞서 정리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울 것이다.”고 한탄했다. 서동환 의원은 “김제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먼저 결정하고 내부 개발하자고 주장하는데, 여태 방조제 조성

이나 새만금 개발할 때 관할권을 먼저 정한 적은 없었다”며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당시에 관할권을 결정했다면 1, 2, 3, 4방조제가 모두 군산 관할이었을 것이다. 방조제 관할권은 개발 후에 논의되었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는 개발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도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가 예전 국회의원 시절과 다르다. 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하며 군산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던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며 “송하진 전 도지사 때도 지역 차별을 당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더 심해졌는데, 군산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가 더 역차별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 김제 두 지역이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소용이 없다. 관할부처는 도지사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그만큼 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니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종대 의원은 “여태 터전을 일궈놓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꼴이다. 김제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우리 군산 시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현재도 군산의 행정구역인 곳을 도에서 왜 군산 관할이라고 말을 못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도지사 면담과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 건의문을 전라북도에 전달했다.



상임위 현장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15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관련하여 “단순히 인위적인 캠핑장이 아닌 훼손을 최소화하는 캠핑장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며 “펜스 등 인공물 설치를 자제하고 기존 시설물 및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 자연과 어우러진 캠핑장 조성은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방문한 행복위 위원들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인 만큼 주변 시설물 등 청결히 관리할 것”과 “향후 장자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완공되면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중대)가 지난 15일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하여 노후된 건물이므로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면서, 특히 대학로 인도에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하통로 공사 시 본 건물과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주문했다.

또한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은 현장에서 경진위 위원들은 애초에 부지 선정단계에서의 철저한 입지검토가 부족했다며 더욱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격상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이지만 현장 내 부설주차장은 14면뿐이어서 주변 부지를 임시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용객 불편을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단기업체 현장방문 실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14일 OCI 군산공장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김영일 의장은 “OCI 임직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고용과 투자 촉진에 대한 동반 협력을 하고자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군산시의회는 앞으로 기업들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기업투자를 이끌어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짐했다.



군산시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성금 전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피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마련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피난처, 식료품, 구호품 지원 등 현지의 피해 구호를 위해 사

용될 예정이다. 김영일 의장은 “지진피해를 겪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성금이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뜻깊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3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14일 열린 본회의에는 신동진씨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군산쌀 살리기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 시설 사업계획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드립니다

2023 시민안전보험 시행

군산 시민은 누구나 재난·사고, 화재·폭발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군산시가 제공하는 안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다. 보장 항목은 ▲감염병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미만) 등으로 총 2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및 스쿨존·실버존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재난·자연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해 강화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보장 금액은 최대 1천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1522-3556)으로 청구하면 된다.

안전총괄과 454-3843

군산 새만금 산단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



민간기업 입주희망 업체 모집

군산시가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내 '수산물 가공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입주할 희망 기업을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하는 '민간유치지역'에는 일일 약 3만 톤 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해수 인·배수 기반 시설이 설치돼, 군산의 주력 수산물인 '김'을 응용한 다양한 식품산업 육성을 주도한다.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민간 사업부지 기본 관리 계획 수립 및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추진되면 수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정책과 454-3034

군산공항 활주로 공사안내

4월~8월까지 군산~제주 항공기 운항 중단

군산공항이 4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항 중단된다. 이에 따라 군산~제주를 오가는 1일 왕복 3회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다. 이번 공사로 노후 활주로 포장 및 제설·방빙 시설 공사도 실시돼 군산공항의 동절기 주요 결항요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행정과 454-3772

살기 좋은 군산으로 오면, 평생교육은 덤!



전입시민이라면 군산시 평생학습관 강좌 무료

타 지역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시민이면 누구나 군산시 평생학습관 강좌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산시 전입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군산시 평생학습관 및 월명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무료 수강 혜택을 드린다. 또한 강좌 수강 후 제공하는 포인트 점수를 획득하여 포인트 달성에 따라 도서 수령이 가능한 '행복포인트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 (<http://lll.gunsan.go.kr>)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지원과 454-2602

찾아가는 토지이동민원 현장접수 처리

군산시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필요한 보행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토지이동민원 현장접수 처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현재 토지이동 신청은 시청 방문시에만 처리 가능했으나 거동 및 교통이 불편한 교통 취약층을 위해 전화 또는 우편 신청을 받아 민원 처리 가능토록 개선했다. 신청 시 해당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민원을 접수, 처리해준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민원인들에게 현장 중심의 편리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454-3962

4년만에 다시 달린다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 개최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전북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가 4월 9일 열린다. 국내 엘리트 선수와 국내·외 마라톤동호인, 군산시민 등 8천여 명이 참가 예정으로 풀코스(42.195km), 10km, 5km 등 3개 종목이다. 월명체육관 경기장 안에서 각종 부스도 운영 예정이니 군산의 벚꽃을 만끽하시길 바란다.

체육진흥과 454-3298

홈페이지 <http://smgmarathon.com>

※ 4월 9일(일) 06:30~13:00 동안 구간별 교통이 통제됩니다.

자세한 위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용에가~은파 순환도로 개통



총연장 480m, 폭 30m의 6차선 도로

군산 지곡동 쌍용에가아파트와 은파호수공원을 잇는 연결도로가 개통됐다. 지난 2019년 착공 이후 4년여 만에 총 130억 원을 들여 지곡동 쌍용에가아파트 정문에서 은파호수공원 순환도로까지 480m, 폭 30m의 6차선을 개설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그동안 지곡동 인근 아파트 개발 사업과 군산초·동산중 개교로 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도로 개통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인근 주민의 교통체증이 해소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과 454-3523

군산시의회의원재선거 군산시나선거구

(해신동, 삼학동, 신풍동, 소룡동, 미성동)

4월 5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 표를 심는 날

선거일 투표

4월 5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 코로나19 격리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3월 31일(금)~4월 1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시간: 4월 1일(토) 오후 6시 30분~오후 8시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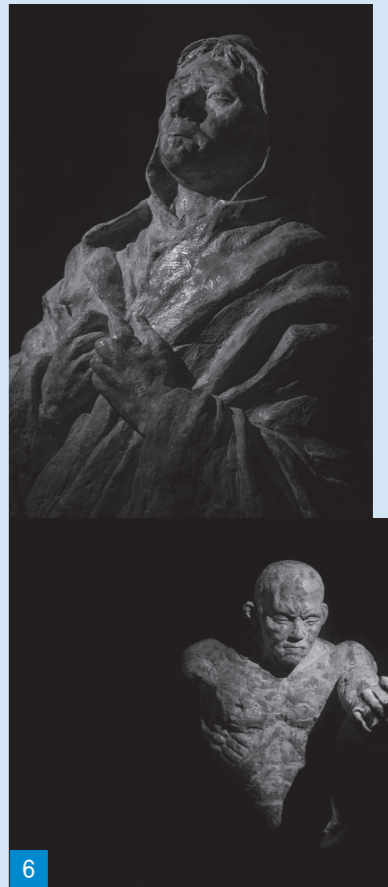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단, 화면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불가)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

군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위반 시 고공주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든 1390



1 호랭이가 답삭 물어갈 뽕파야

심청전에서 뽕덕어머를 주인공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창극 특유의 해학과 풍자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만 5세이상 관람가로 관람료는 무료이다.

- 🕒 4.8.(토) 15:00
-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5

2 EBS 모여라 땡땡땡

어린이들의 히어로 번개파워!!! 번개맨이 5년 만에 군산에 온다. 아차, 아차차를 물리칠 번개맨이 군산어린이들에게 번개 기운을 선사할 예정이니 친구들 모여라! 2015년생부터 2021년생까지 신청가능하며 무료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모여라 땡땡땡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 🕒 4.19.(수) 14:00, 16:30, 19:00
-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5

3 로맨틱 파트너스 콘서트 <옥주현&길병민>

뮤지컬 최고의 디바 옥주현이 군산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를 선보인다.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함께 출연한 길병민과의 아름다운 듀엣곡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관람료는 R석 8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으로 4월 14일까지 예매시 조기할인 20% 된다. (만 7세이상 관람가)

- 🕒 4.28.(금) 19:30
-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5

4 목 짧은 기린 지피

2022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 뮤지컬. 목이 짧은 기린 지피가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하고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내용으로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며 다른 모습 그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이다. 5세 이상 관람가로 관람료 무료. 4월 12일(수) 10시부터 군산시 통합예약시스템(www.gunsan.go.kr/event)을 통해 선착순 접수 받는다.

- 🕒 4.22(토) 11:00, 14:00
- 📍 군산어린이공연장
- ☎ 어린이공연장팀 454-5743

5 사진으로 보는 한국 독립운동사 : 독립운동사 20선

3.1운동 104주년을 맞이하여 독립기념관 순회전이 열린다. 일제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사진을 소개하여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와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다. 향후 8월~11월 '광복, 되찾은 빛', 12월~24년 3월 '독립이라는 이름의 꽃'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에 대해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 4.1.(토)~7.30.(일)
- 📍 군산3.1운동 100주년 기념관
- ☎ 박물관관리과 454-5943

6 시민열린갤러리 김종창 개인전 「다시 시작」

금번 전시에서는 「고래」, 「기도」, 「갈증」 등 조각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애정이 담긴 조각 작품 20여 점을 공개했으며 작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한편,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작가들과 관람객이 소통할 수 있는 전시를 위한 시민열린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 🕒 2.28.(화)~4.30.(일)
- 📍 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 ☎ 박물관관리과 454-7873



구석구석 군산 소식 전해요! **블로그** 

 **페이스북** 갖 구운 따끈따끈한 소식

아시아의 숨은 관광명소 군산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친추하면 꿀정보 가득

뚝뚝 공무원튜브 좋아요! **유튜브** 